

# 초상집에 찾아가 전쟁화약내만 피운 호전광

얼마전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남조선을 행각하였다. 사전계획에도 없던 오바마의 이번 남조선행각은 치마두른 하인의 거뜬되는 양말과 아양에 못 이겨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것이다.

지금 남조선은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력객선침몰사고로 해서 한마디로 초상집이다. 따지고보면 오바마는 행각자체가 비정상적인 데다가 력객선침몰사고까지 발생했건만 남조선에 대한 행각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오바마는 남조선에 대한 행각을 기어코 단행하였다.

동방에 가면 그 나라 풍습을 따르고 서방에 가면 그 나라 관습을 따르라는 말이 있다. 하다면 일단 남조선에 온 오바마는 이 말대로 행동하였는가 하는 것이야. 말하자면 희생자들에게 진정 어린 애도의 뜻을 표시하고 또 피해자 가족들을 위

로하는 것과 같은 우리 민족의 조상전례의 풍습대로 행동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아니다.

알려진 것처럼 행각기간 오바마는 《수비회담》과 공동기자회견, 미국남조선 《연합군사령부》시찰 등을 통하여 우리 공화국을 끊임없이 끌어들면서 남조선당국을 반공화국대결제로 적극 부추기었다. 지어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활동과 로케트발사를 구실로 보다 강한 행각자체를 《제재》와 《대북공조》를 취하며 미씨일방위체계구축과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문제까지 합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자회견이라는 데서 그는 무슨 《수명을 잘한다.》느니 뭐니 하며 통틀기까지 해대며 수행기자들의 목소리를 터뜨리는 것과 같은 추태를 부려 《수비회담》이라는 데서 한 애도표시가 진정성이 없는 한갓 형식에 불과하였다

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마디로 오바마는 이번 행각기간 초상집에 찾아가 장사꾼이나 하고 혼사말이나 지껄이는 불청객과 같은 시정배로서의 눈물사나운 행동만 하였다.

문제는 비단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바마는 초상집에 와서도 긴장과 전쟁공중이만 해댄 것이다.

그가 그 누구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처》냐, 《군사력사용을 망설이지 않겠다.》느니 하며 공화국을 해칠 승냥이이발을 그대로 드러냈는지 바로 그것이이다.

적반하장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핵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미국은 공화국의 핵에 대해 입이 열백개라도 말할 자격이 없다. 오히려 공화국이 미국에 대해 따질 문제이다. 전제없는 답이란 없다. 미국

이 조선반도남쪽에 1 000여 개의 핵무기를 비축하고 때없이 방대한 핵타격수단을 들이켜고 광분하여왔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런 전제가 있기때문에 그에 따른 공화국의 자위의 핵이란 답이 나온 것이다. 그레 오바마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 오바마가 공화국의 핵을 두고 저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묘사하는 것은 북의 자위적인 억제력을 《위협》으로 묘사하는 것은 북의 사울행각은 세계의교역사에 더러운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미국이 핵무기를 휘두르며 《강대국》의 지위를 뽐내던 시기는 이미 지나간 지 오래다. 오바마는 지금이라도 상대가 누구인지 똑바로 가려보고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얻을 것은 파멸뿐이라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본사기자 김 응 철

미국이 야망은 어제도 오늘도 변하지 않았다. 그 실현을 위해 미국은 공화국에 대한 침략의 구실로 《위협》과 《도발》을 떠들다 못해 나중에는 《인권》라령까지 하고있다.

않을 자리 설 자리도 가리지 못하고 초상집 남조선에 기어들어 초보적인 인륜도덕도 란죽하게 짓밟아 못해 북침흥제만 일삼으며 핵참화로 우리 민족을 말살해보겠다는 것을 공공연히 드러낸 오바마의 사울행각은 세계의교역사에 더러운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미국이 핵무기를 휘두르며 《강대국》의 지위를 뽐내던 시기는 이미 지나간 지 오래다. 오바마는 지금이라도 상대가 누구인지 똑바로 가려보고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얻을 것은 파멸뿐이라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본사기자 김 응 철

## 제정신이 있어 하는 짓인가

60이 넘도록 부끄러울줄도 창피도 모른다면 그는 사람이라 말하기 어렵다. 이번 오바마의 남조선행각기간 박근혜의 추태는 정상사람의 사고로는 정말 봐주기 민망스러운 수치스러운 반인륜적행위, 반민족적대결광기였다.

지금 남조선은 수많은 희생자와 실종자를 낸 력객선침몰사고로 그야말로 대성통곡을 해도 씨원치 않을 대참사의 초상집이다. 이런 초상집에 남조선집권자는 오바마를 청해다놓고 《환영의식》이요, 《정상회담》이요, 남조선미국 《연합군사령부》참관이요 하며 돌아쳤다. 그 과정에 상전의 비위를 맞추느라 제 입에서 구렁이 나가는지 뱀 나가는지 모르고 주철대며 공화국에 대해 악담질도 서슴없이 해댔다.

아직도 바다물속에 있는 시신들을 무시하고 슬픔에 잠긴 가족들을 외면한채 아무 상관없다는듯 멘델스럽게 화사한 하늘색옷차림까지 하고 오바마주변을 맴돌았으니 사람들의 비난을 받은것도 당연하다.

그레 박근혜의 귀에는 《〈정부〉는 살인마. 내 아이를 살려내라.》고 웨치는 유가족들의 피라는 절규가 들려오지 않으며 인민들의 분노가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수백명 아이들이 바다물속에서 죽어가고는 눈섭 하나 까딱않고 상전을 청해다 온갖 교태를 부리며 공화국에 대한 보다 강도높은 《제재》를 구걸하는 이런 잔인한 치마두른 독재자의 통치하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미래의 꽃으로 활짝 피어날수 있으며 력객선침몰사고와 같은 대참사가 다시 없으리라고 장담할수 있겠는가.

민족의 화해가 아니라 대결과 전쟁을 선택한 대결광신자들의 말로는 수치스러운 파멸뿐이다.

김형직사범대학 어문학부 학부장 윤 동 일

## 저 복기만큼 오래 산다 해도...

이번 남조선행각 전기간 오바마는 남조선 집권자 박근혜를 열려주고 쓰다듬으며 공화국의 그 무슨 《도발》과 《위협》, 《인권》문제 그리고 그와 관련한 강도높은 《제재》에 대하여 입아프게 떠들여댔다.

오바마가 집권 2기째나 되도록 아직도 우리 공화국을 바로 보지 못하니 이는 지능지수에 관한 문제가 아닐가.

커다란 기대안고 아직도 곤질기게 매달리는 오바마의 《전략적인내정책》 그자체가 가소롭기 그지없다.

제가 뭐 거북기만큼 오래 살기라도 하는가. 주재에 무엇을 인내성있게 기다린다니 하는 말이다.

청맹파니 오바마가 직접 고안해내고 애써 실행하려는 《전략적인내정책》은 그 전제부터가 잘못된것이다보니 미국의 끝없는 쇠퇴와 몰락을 불러오고있다. 그 잘못된 전

제란 있을래야 있을수 없는 공화국의 《부괴》이다.

우리는 수십년간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겹겹진 《제재》와 《봉쇄》속에서도 끄떡없이 사회주의를 수호하였을뿐만아니라 강력한 핵억제력을 갖춘 자위의 강국으로 승승장구해왔다.

아무리 위협공갈하고 악랄한 고압압살책동에 매여달린다 해도 미국이 바라는 그 무슨 《부괴》란 있을수 없으며 오바마가 설사 300년을 산다는 거북기만큼 오래 살며 에라게 기다려도 《전략적인내정책》은 빛을 볼수 없다. 오바마의 대통령자리 역시 결코 영원한것이 아니며 지금과 같이 어리석게 놀아낸다면 차레진 제 명도 다 살기 힘들것이다. 오바마는 자결 위해서라도 옳은 선택을 해야 할것이다.

중앙동물원 사육관리공 리 천 명

## 아이들을 바다속에 잠그고 무슨 《인권》라령?

박근혜가 백악관주인과 마주앉아 우리의 《인권》에 대해 떠들었다는데 정말 가소롭기 짝이 없다.

그레 그가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이 나 있는가.

다른것은 다 그만두고라도 이번 력객선침몰사고만 해도 그렇다.

한창 피어나고있는 꽃망울같은 아이들이 차거운 바다속에서 죽어갈 때 박근혜는 과연 뭘 하고있었는가.

마치 자기는 잘못이 전혀 없다는듯이 책임회피에 급급해하고 화려한 옷에 아양을 떨며 상전의 비위를 맞추느라 꼬리를 치지 않았는가.

이런 박근혜가 있지도 않는 우리의 《인

권》에 대해 아무리 겹고들여야 누가 곧이 들었는가.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라시키고 청와대 안방에 들어앉아있는것을 보면 흡사 푸른 기와장 밑에 파리를 틀고있는 독사를 보는 것만 같다.

제 얼굴에 매다칠한 구경물은 보지 않고 남을 겹고드는 박근혜의 악습은 죽어야만 고쳐진다.

박근혜가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다가는 상전과 민심의 두 총알에 맞아 저승에 간 제 예비의 뒤를 따라가게 될것이다.

평양시 모란봉구역 개선동 43인민반 김 철 수

## 제대결의 종착점은 전쟁

조국통일을 민족이 단합하여 민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하는것은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의 해결같은 소원이요 열망이다. 민족의 이 념원을 실현하는 길은 오직 하나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체도를 그대로 두고 통일 국가를 건설하는 련방제 방식밖에 다른 길은 있을수 없다.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기의 사상과 체도를 내려먹이는것은 기결코 민족내부의 불신과 대결을 초래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우리 민족의 머리에 커다란 재앙만을 들죄게 될것이다.

민족분열사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 지난 세기 40년대에 외세에 의하여 나라가 분열된 직후부터 공화국은 전체 조선 민족의 단합된 힘

가속속에 남아있는 전쟁의 상처는 아물지 않고있다.

그후에도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은 《유신》독재자나 군부강제들이 조선반도정세를 긴장시킬 때마다 전쟁의 불구름은 더욱 짙어져갔고 우리 민족은 헤아릴수 없는 심리적, 물질적고통을 강요당하였다.

남조선에서 6.15통일시대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매도하면서 지난 2008년 집권한 보수세력은 더욱더 로골적으로 제대대결에 열을 올렸다.

리명박역도는 미국에까지 가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통일》을 운운하였는가 하면 《통일은 한밤중에 저같이 올수 있다.》는 낯도깨비같은 수작을 늘어놓아 온 겨레의 분노를 자아냈다. 리명박 《정권》의 동족대결, 제대대결수동으로 인해 북남사이에서 서로 총로란이 오가는 불미스러운 사태까지 발생하였으며 미국과 야합한 북침핵전쟁공격연습으로 인해 이 땅에는 핵재난이 고있다.

체대대결이 몰아온 이러한 미국의 교훈을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한채 분수없이 입부리를 놀려대는 남조선의 현 집권자의 망동은 지금 민족의 중요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얼마전 그가 유럽나라들을 돌아치면서 놀아낸 교락사니만 놓고보자. 도이쉴란트를 방문한 박근혜는 베를린장벽이 있던 장소와 드레즈덴시내 등을 돌아치면서 이 나라 통일방식이 자기의 《통일도》이요 그리고 뇌까래대기도 하였고 그 나라 수상 출신까지 거론해대며 인간쓰레기들인 《탈북자》들을 《통일》 실현의 돌격대로 내세우려는 흉심도 꺼리낌없이 내뱉었다.지어 《드레즈덴선언》이라는 데서 《경제난속

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거리에 방치되어있고 추위속에서 배고픔을 견뎌내고 있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동족을 모해하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결국 그의 《선언》이라는데 담겨진 이른바 《대북3대제안》이라는 것이 북남사이의 대결과 전쟁을 더욱 조장시키는 불순한 목적을 노린것이라는것을 스스로 증명해보인셈이다.

박근혜가 선친인 박정희도 받아문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까지 부정하면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통일》, 《도이쉴란드식통일》을 력설한데 대해 공화국은 얼마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공개질문장을 통해 그가 말하는 《통일》이란 어떤 통일인가, 먹고 먹히우는 체대대결이라면 전쟁방에 없는데 이것을 바라는가를 명백히 하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며칠전 남조선에 날아온 미국대통령 오바마와 함께 공화국의 핵과 병진로선,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시비질하면서 온갖 사대매국, 동족대결적 악담을 다 늘어놓았다. 오바마와 함께 춤을 춘 추악한 행실로 박근혜는 북남화해에 기초한 평화통일이냐, 체대대결에 의한 전쟁이냐 하는 공화국의 물음에 전쟁으로 대답하였고 자기의 《신뢰프로세스》라는것이 리명박역도의것과 같은 대결정책이라는것을 적라라하게 내보이었으며 북남관계개선은 꼬물만치도 안중에 없고 북파끝까지 대결하면서 정세를 파국으로 몰아갔다는것을 온 세상에 시조하였다.

공화국이 준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고 반통일의 길, 반평화의 길, 대결과 전쟁의 길을 택한 박근혜는 이제 그 대가를 단단히 치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철 민

양지역에 대한 군사정치적 지배와 동맹강화를 추구하고있다고 가짜말았다.

미군기가 있는 나라들에서 미국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계속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오바마행정부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는 미국

의 모든 군사기지들을 철수하고 각종 합동군사연습을 전면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미국과 남조선, 일본의 군사동맹강화와 미국주도의 환태평양경제권 대형정책결을 반대하였다.

본사기자

으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진지하고도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과 성의를 부정한 리승만역도는 《북진통일》을 부르짖으며 미국의 직접적인 지휘와 종중밀에 북침전쟁을 일으키는것으로 대담해나섰다.

3년만에 걸치는 전쟁으로 인하여 삼척리강토는 제머리로 화하였고 우리 민족은 이루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겪어야하였다. 전쟁이 끝난 때로부터 60여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전쟁으로 인해 북과 남에 흩어진 가족, 친척들을 비롯하여 우리 민족

《오바마, 대한제국의 어보, 국새반환》

남조선 인터넷신문 《위트 페기》에 실린 풍자만화 《오바마, 대한제국의 어보, 국새반환》이다. 남의 땅에서 흙쳐간 보물을 마치려 못해 가져오면서다 마치 《선물》이나 주는듯 한 오바마의 교활하

《당신은 큰 벌 받을겁니다》

은 남녘땅이 《세월》호침물로 수백명이 목숨을 잃고 크나큰 슬픔에 잠겨있는 때에 미국대통령 오바마를 남조선에 끌어들이는 통행 해를 분노한 민심이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라는것을 보여주는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미디어다움》 4월 25일부의 풍자사진이다. 생애같은 자식들을 무능하고 무책임한 집권자락에 잃고 가슴을 치며 목놓아우는 유가족들, 침몰하는 력객선과 함께 목숨을 빼앗긴 사람은 한 두명도 아닌 수백명이다. 말그대로 대참사이고 온 남녘땅이 초상집분위기이다. 이런 초상집에 오바마라는 강도두목을 끌어들었다. 화사하게 분을 바르고 파란 옷을 걸치고 아양을 떨며. 박근혜에게는

